



# 해외양돈뉴스



## ✧일본

### 작년 비육돈 생산비 소폭 감소

일본의 비육돈 두당 생산비가 사료비 감소에 따라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농림성에 따르면 작년 비육돈 1두당 생산비는 2만9천676엔으로 05년 2만9천943엔보다 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생산비가 준 것은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줄었기 때문으로 06년 두당 사료비는 1만8천582엔으로 일년전 1만9천139엔에 견줘 2.9% 적었다. 이와 함께 수의사 비용 및 약품비, 인건비도 각각 1천357엔, 4천490엔으로 05년 대비 3.7%, 2% 줄었다. 반면 인공 수정 비용과 자재임대료, 수도광 열비 등은 16~2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 돼지 값 9월 이후 연속 하락 1월 두당 88.3달러 전년동기 19% 하락

미국의 돼지 값이 다섯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1월 평균 돼지 값(100kg 기준)은 전달 89달러보다 소폭 떨어진 88.3달러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또 06년 동월 108.6달러에 견줘 18.7% 낮은 가격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체 값 역시 140달러(100kg 기준)로 한달전 143달러에 비해 2%, 전년 같은 기간 161.3달러 대비 13.2% 떨어지면서 6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kg당 부위별 가격은 삼겹살 1.28달러, 갈비 2.43달러, 안심 4.53달러, 등심 2.21달러로 전월비 각각 28%, 5.4%, 8.5%, 1.3% 하락했다.

이처럼 미국 돈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돈육 생산량

이 증가한데다 소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 돈육수출 2년 연속 최고 기록 갱신 예상

지난해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06년 11월말 돼지고기 수출량은 114만8천톤(부산물포함)으로 1년전 같은 기간 105만3천톤에 비해 9% 증가했다. 특히 사상 최고였던 05년 전체 수출량 115만8천톤과는 1천톤 차이로 06년 돈육 수출량에서 2년 연속 사상최고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32만4천630톤을 수입해 최대 수입국의 자리를 지켰으며 러시아의 경우 8만594톤으로 전년대비 1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 ✧중국

### 간쑤성에서 구제역 재발

최근 중국 북서부 간쑤성에서 구제역이 재발, 소와 양들이 도살 처분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농업부는 지난 1월 28일 간쑤성 징타이현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소 18두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어 발병 지역의 소 400여두와 양 100여두를 살처분한 것으로 전해왔다. 한편 간쑤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만 2번째이다.

## ✧멕시코

### NAFTA 이후 돈육 수입 급증

멕시코가 미국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멕시코, NAFTA 이후 거시 경제지표 변화'란 보고서를 통해 94년 멕시코-미국 NAFTA 발효 이후('95~'05년) 대미 농산물 수출·입 모두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더 크게 늘어 무역적자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95~05년까지 돼지고기의 연평균 수입량 증가율이 10.3%로 NAFTA 이전(90~94년) 0.2%에 견줘 크게 늘면서 농산물 가운데 수입량 증가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쇠고기와 낙농제품, 닭고기 등의 경우 각각 8.5%, 6.3%, 3.8% 늘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축산물의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고 농경연은 분석했다.

### ✧러시아

#### 돈육 생산량 지난해보다 20% 증가 예상

금년 러시아의 돈육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러시아 현지 언론은 양돈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올해 돈육종합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러시아의 돈육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돈육생산업체들이 추진 중인 대규모 돈육 단지가 세워지기 때문으로 올해 여름 아를로브스키주에 10만8천마리 규모의 첫 번째 돈육종합단지가 세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뎀보브스키주에도 연간 2만5천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돈육 종합단지 건설을 적극 지지, 돼지고기 생산이 당초 계획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캐나다

#### 9번째 BSE 감염소 발견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지난 2월 7일 앨버타주의 성우 수소 한 마리가 BSE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

인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해당 소는 식품 공급망이나 동물 사료에 유입되지는 않았으나, 캐나다에서 이전에 BSE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다른 소들과 나이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캐나다는 BSE 확산 방지를 위해 2007년 7월부터 강화된 사료금지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 ✧세 계

#### 사료 곡물가 폭등세

생산·재고량 감소 영향

최근 미국 농무성은 세계 사료곡물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재고량은 다음과 같다.

△사료곡물의 세계 생산량은 9억6천238만톤으로 전월 9억6천899만톤에 비해 0.7%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2억8천11만톤으로 전월 2억8천572만톤보다 2% 줄었다. 세계 재고량은 1억1천798만톤으로 한달전 예상치 1억2천414만톤보다 5%, 미국은 2천227만톤으로 지난 달 2천728만톤에 견줘 18.4% 각각 감소했다.

△옥수수의 세계 생산량은 6억8천720만톤으로 전월 예상치 6억9천289만톤보다 0.8% 줄었다. 미국은 2억6천760만톤으로 지난달 2억7천293만톤 대비 2% 적었다. 재고량은 8천644만톤, 미국 1천910만톤으로 전월에 비해 각각 6.8%, 19.6% 감소했다.

△대두박의 세계 생산량은 1억5천242만톤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한 가운데 미국 생산량은 3천848만톤으로 한달전과 같았다. 재고량은 407만톤으로 전월 예상치보다 4.9% 많았으며 미국은 27만톤으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1월 하순 현재 사료곡물 시세는 C&F(운임을 포함한 가격)기준 미국 톤당 옥수수의 경우 232.7달러로 전월 평균 210.3달러에 비해 22.4달러, 대두박은 309.6달러로 한달전 282달러보다 27.6달러 각각 올랐다. **양돈**